

2018년 8월 24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미-중 무역협상 우려 여파로 하락 에너지, 산업재 하락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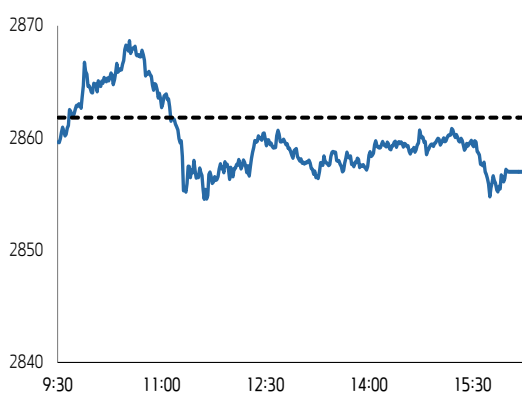
미-중 무역분쟁 우려 부각

미 증시는 160 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발효 여파로 부진. 특히 에너지 및 금속가격이 하락한 여파로 원자재주가 하락 주도. 다만, 이는 예견된 내용이었던 점을 감안 조정폭은 제한. 한편, 대형기술주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이자 나스닥의 경우는 상승하기도 했으나, 장 막판 매물 출회되며 하락 마감(다우 -0.21%, 나스닥 -0.13%, S&P500 -0.17%, 러셀 2000 -0.32%)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관련 내용에 의해 변화. 시장 참여자들은 오늘까지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 이에 힘입어 최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불확실성이 부각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부각. 미-중 간의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 이 여파로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 등 상품시장이 약세를 보이며 원자재주가 부진. 더불어 보잉과 캐터필라 등 산업재 또한 하락.

한편, 전일 미국이 예정되어 있던 160 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발효.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 미국을 WTO 에 제소하는 한편 160 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제품에도 관세 발효. 무역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발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약화 시킨 요인. 협상 결과는 한국시각 오전에 보도될 것으로 전망. 다만, 결정권자들의 회담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 합의 보다는 실무적인 내용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 지난번 무늬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의 비밀 회담에서 논의 되었던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 축소, 위안화 절상 등과 더불어 지적 재산권 등도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0.41	2,282.60	홍콩항셱	27,790.46	-0.49		
KOSDAQ	+0.68	791.28	영국	7,563.22	-0.15		
DOW	-0.30	25,656.98	독일	12,365.58	-0.16		
NASDAQ	-0.13	7,878.46	프랑스	5,419.33	-0.02		
S&P 500	-0.17	2,856.98	스페인	9,567.30	-0.13		
상하이종합	+0.37	2,724.63	그리스	731.19	+1.63		
일본	+0.22	22,410.82	이탈리아	20,608.51	-0.4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원자재주 하락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 우려감이 높아지자 원자재주는 하락 했다. 엑손모빌(-1.10%) 셰브론(-0.69%), EOG리소스(-0.78%) 등 에너지 업종과 US스틸(-2.02%), AK스틸(-4.92%) 등 철강업종, 그리고 알코아(-2.78%) 등 알루미늄 업체도 하락 했다. 한편, 마이크론(-1.07%)도 무역분쟁 우려감이 높아지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보잉(-0.73%), 캐터필라(-2.03%) 등 산업재 업종 또한 하락했다. Jp모건(-0.21%), 웰스파고(-0.93%), BOA(-0.45%) 등 금융주는 채권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알리바바(-3.16%)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 했다. 진둥닷컴(-2.94%) 등 중국 업체들도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전일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던 타겟(+0.90%), 로이어(+1.54%)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한 N비디아(+1.53%)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AMD(+6.65%)는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되자 급등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46%	대형 가치주 ETF	-0.26%
에너지섹터 ETF	-0.72%	중형 가치주 ETF	-0.45%
소매업체 ETF	+0.25%	소형 가치주 ETF	-0.50%
금융섹터 ETF	-0.46%	배당주 ETF	-0.19%
기술섹터 ETF	+0.22%	변동성 ETF	-0.79%
소셜 미디어업체 ETF	-0.12%	대형 성장주 ETF	-0.11%
인터넷업체 ETF	+0.15%	중형 성장주 ETF	-0.06%
리츠업체 ETF	-0.24%	소형 성장주 ETF	-0.02%
주택건설업체 ETF	-0.05%	신흥국 고배당 ETF	-1.33%
바이오섹터 ETF	-0.58%	신흥국 저변동성 ETF	-0.56%
헬스케어 ETF	-0.03%	하이일드 ETF	-0.0+
곡물 ETF	-0.88%	물가연동채 ETF	+0.08%
반도체 ETF	+0.12%	Long/short ETF	+0.3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44.07	-0.52%	+2.11%	-4.40%
소재	365.95	-0.70%	+0.69%	-1.95%
산업재	640.20	-0.37%	+0.68%	+0.29%
경기소비재	907.67	-0.19%	+1.56%	+1.91%
필수소비재	554.90	-0.21%	-0.97%	+1.52%
헬스케어	1,056.17	-0.10%	+0.68%	+3.10%
금융	466.41	-0.51%	+0.15%	+0.13%
IT	1,286.61	+0.18%	+0.77%	-0.10%
통신	155.61	-0.09%	-0.99%	+7.27%
유틸리티	270.10	-0.01%	-1.47%	+0.79%
부동산	205.38	-0.21%	-0.76%	+1.6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미-중 무역협상 내용에 따라 변화 예상

MSCI 한국 지수는 1.17% MSCI 신흥 지수도 1.62%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608 계약) 여파로 0.65pt 하락한 293.5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3.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결과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을 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관련된 내용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매물 출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점도 부담이다.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유입되며 최근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무역협상 결과를 앞두고 하락했다는 점은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을 높인다.

한편,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탄핵이 된다면 시장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과거 1972 년 닉슨과 1998 년 클린턴 사례를 본다면 탄핵 이슈가 부각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 변화는 있었으나 제한적 이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곧바로 금융이나 부동산 혹은 투자부문에서 특별하거나 급진적인 정책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 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 보도 내용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지표 둔화

미국 7 월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63 만 8 천건) 보다 둔화된 62 만 7 천건에 그쳤다. 예상보다 1.7% 감소한 수치로 가격 상승과 재고 감소로 인해 위축되었다.

미국 6 월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 했다. 전년 대비로는 6.5% 상승 했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17 만 2,900 건) 보다 감소한 17 만 2,700 건으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 강세

국제유가는 달러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다만, 전일 미국의 원유재고가 크게 감소하고, 이란 또한 제재 여파로 수출에 차질을 생겼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하락폭은 제한 되었다.

달러지수는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연준위원들이 금리인상 의지를 표명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파운드화가 브렉시트 여파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한편, 유로화는 이탈리아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우려감이 높아지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0.66%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시장에서 알려진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관망속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한편, 경제지표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우려는 금리 하락 요인이었으나, 카플란을 비롯한 연준위원들이 금리인상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자 하락폭이 축소되거나 상승 했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중국과의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0%, 철근도 0.77%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7.83	-0.04	+4.55	Dollar Index	95.633	+0.51	-1.05
브렌트유	74.73	-0.07	+4.62	EUR/USD	1.1542	-0.47	+1.45
금	1,194.00	-0.77	+0.84	USD/JPY	111.22	+0.60	+0.29
은	14,642	-1.40	-1.12	GBP/USD	1.2815	-0.74	+0.78
알루미늄	2,075.00	+0.48	+1.32	USD/CHF	0.986	+0.29	-1.09
전기동	5,986.50	-0.31	+0.82	AUD/USD	0.7249	-1.35	-0.17
아연	2,468.50	+0.06	+3.20	USD/CAD	1.3080	+0.64	-0.58
옥수수	361.00	-1.57	-4.94	USD/BRL	4.1175	+1.84	+5.45
밀	541.75	-0.64	-3.60	USD/CNH	6.8932	+0.67	+0.44
대두	854.00	-1.87	-4.79	USD/KRW	1121.40	+0.22	-0.77
커피	101.50	+0.59	-3.65	USD/KRW NDF 1M	1123.75	+0.61	-0.27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823	+0.36	-4.34	스페인	1.370	-0.80	-7.00
한국	2.395	-0.70	-7.50	포르투갈	1.792	+0.40	-5.10
일본	0.100	+0.10	-0.20	그리스	4.151	-2.30	-14.20
독일	0.339	-0.50	+1.90	이탈리아	3.084	+2.80	-2.70